

어린 물고기 보호 문화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바다를!

치어럽



어린물고기를 지키고,
우리의 바다를 지켜주세요.

치어럽



치어럽 캠페인이란?

시민참여형 혁신적 수산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린 물고기를 사랑하자(LOVE)', '어린 물고기를 키우자(UP)'의
중의적 의미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확보 및
현명한 수산물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윤리적 소비를 통해

(어린물고기는 사지도 먹지도 말기)

우리의 바다를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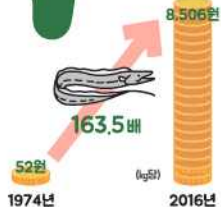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물고기는
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주세요

밥상에서 멀어지는 국민생선

밥상 위의 '금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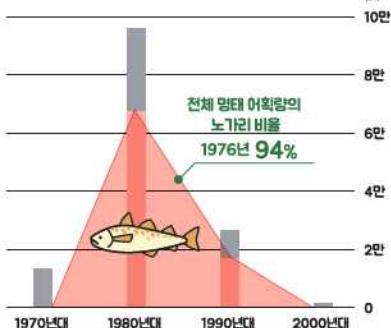
- 갈치는 1974년에 약 17만 톤이 생산되어 당시 8만 톤이던
고등어 생산량의 두 배를 보였고 가격 또한 kg당 52원으로
- 고등어(kg당 61원)보다 흔하고 저렴했음
하지만 2016년에는 산지에서 kg당 8,506원(고등어 1,255원)
이라는 고가를 기록하며 '금갈치'라는 별명과 함께 밥상에
올리기 힘든 '귀족생선'이 되어가고 있음



한 번의 산란 기회도 빼앗아 '바닷속 저출산' 심화

노가리는 어종 명칭이 아니라
보호돼야 할 명태의 어린물고기

- 국민생선이던 명태가 우리나라 연근해
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은 어린물고기의
남획이 주된 원인이며, 노가리는 어종
명칭이 아니라 보호돼야 할 명태의 어린
물고기임
- 1976년에는 전체 명태 어획량의 약
94%를 노가리가 차지하여 명태 자원은
'상업적 멸종'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어업생산 통계에서 2008년에 'O'이
되어 버림



물고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 이건 픽션이 아닙니다.

지구 동식물의 80% 이상이 살아가는 바다.
하지만 바다가 황폐화되면서 물고기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UNEP, 2010



**SAVE
OUR
OCEANS**

어린물고기의 어획은 재생산 기회 박탈로 '바닷속 저출산' 심화

- 어린물고기의 어획은 성어가 되어 최소한 한 번의 산란을 통해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바닷속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민생선인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갈치의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어린물고기 어획을 금지하였음

주요 어종의 어린물고기(미성어) 어획 비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보고서, 2018), (어린물고기를 싹쓸이 저해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